

총지종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



총지종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사진)가 2월 17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현화 및 훈향 정공 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효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제생의세의 정신으로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방편과 포교방법을 마련해 더욱더 중

생제도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효강 대종사는 법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불단장업에 대해서 묻자 효강 대종사는 "포교방편으로 불상을 모시는 작업을 종단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만 종도들의 반대로 현재 벽에 부딪혀 잠시 유보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 승단총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강 대종사는 대내적으로 불리원장과 법장원장, 교육원장,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외적으로 불교방송과 불교TV 대표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불사법요 개정·승직자 교육 강화

총지종 올해 사업계획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사진)은 올해 '불사법요'의 개정과 종조 원장대성사의 탄신100주년 기념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불사법요 개정의 경우, 밀교경전과 의례서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에 걸맞는 의례수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승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승직자 순회교육을 더욱 확대해 올해부터는 총지대학원의 학사 일정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내년 총지종 종조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올해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기념사업들을 마무리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종조 유품 화보 및 유고집 발간, 종조설법집과 명상음 음반을 제작한다. 이외에도 올해 여름 어린이 수련법회(11회)와 청소년수련법회(16회)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또 전당 불사사업으로, 경북 포항시에 사찰 신축도 추진중이다. 복지사업으로는 교도들을 위한 남골시설과 노인 요양원을 올해 안에 건립한다. 또 상반기종으로 종단의 종무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각 기구를 존속시키되, 각종 사업을 기획 구성하고 조율할 기획팀을 신설해서 운용한다.

수련회·문화센터 활용 문화포교

삼문종 올해 사업계획



대한불교 삼문종 총무원장 해광 스님(사진)은 2월 15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법회를 활성화하고 수련회와 문화센터를 활용한 문화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3월 19일 월악산 월악불교문화센터로 개원해 종단 수련시설과 불교문화센터로 활용한다. 또한 2월 22일 하립각에서 시작되는 좌담법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좌담식 법회를 개최해 종도들이 함께 모여 중

단의 화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1일 창종기념 좌담법회, 6월 종단 수련법회, 12월 1일에는 초대종정 대선 스님 열반 기념법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법회 봉행을 통해 종도들의 결집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체계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에 법계고시를 정례화하고 종단의 총무원 세칭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광 스님은 "올해 우리 종단의 가장 큰 목표는 종도 재교육에 있고 월악문화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라며 "올해부터 수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화랑좌복 2410채가 5톤 트럭 3대에 실려 강원도 오지부대로 출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정역순 원장.

정역순 원장, 좌복 2410채 전달

강원도 지역 군법당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화랑 좌복 5000채를 기증하기로 한 화랑장학재단 정역순 원장이 1차분 2410채에 대한 전달식을 2006년 2월 14일 경북 칠곡 화랑선원에서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정선진 총책자문위원, 칠곡군 기획감사실 장희우 실장, (사)새생명광명회봉사단 대표 김기원 진주산업대학교 명예교수, 3군단 김민재 군법사, 학군교 김창모 군법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기원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정역순 원장이 7살 때 일본 순사가 노그릇 등 가재도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조국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

었다"며 "그때 이후로 화랑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화랑 좌복 5000채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화랑장학재단 정역순 원장은 "고향을 떠나서 평생 살아왔고 이제 고향에 정착해 10년전부터 발원한 것을 조금 실천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주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엔 정역순 원장이 기증한 2410채의 화랑 좌복은 이날 5톤 트럭 3대에 실려 강원도 양양, 양구, 홍천 지역의 충용사 용해사 원흥사 봉암사 을지사 용천사의 선사 도술사 백암사 천불사 대성사 과 화화훈련단 제2야구교 등의 군법당에 전달됐다. 나머지 2590채의 화랑 좌복은 부처님 오신날 전후로 경기도 지역 군법당에 보내질 예정이다. 글·사진/칠곡=김두식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일면 주지스님이 2월 12일 최천방 도라산전망대에서 신도들에게 인보현실과 방생법회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군법당 돕는게 진짜 방생”

군종특별교구 전방 법당 위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전진부대 일대 전방 지역의 군법당 위문 방생법회를 2월 12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불암사 신도 300여명이 동참해 임진각에서 방생을 한 후 전진부대 호국 전진사를 참배하고 도라산전망대를 관람했다. 군종특별교구 출범 이후 군불교 활성화에 대한 원력의 결실로 봉행된 이번 행사

는 방생의 주제는 인간이며 군불교활성화의 주제는 불자장병과 사부대중이라는 인식에 군법당을 돕는 길이 진정한 방생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방생법회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호국 전진사와 도라산 OP 전방 법당에 참배, 500여만원의 불전 보시를 통해 군장병 위문을 대신했다.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앞으로 군법당 위문 방생법회를 자주 가져 모든 불자들이 군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랑법우회가 2월 11일 호국정심사에서 창립기념 위문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요

군사랑법우회 호국정심사 위문

군사랑법우회(회장 박재년)가 2월 11일 경산 제2야전수송교육대 호국 정심사에서 창립기념 위문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매월 4째주 군법당을 위문한 연꽃선우회 회원들이 모여 만든 군사랑법우회는 군법당을 찾아 위문공연을 펼치기로 서원을 세운 일종의 군법당 위문공연단이다.

군장병들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기념 위문공연은 경화여고 팀의 '사랑의 포로', 여고생들의 '군인여자씨에게'라는 제목의 위문편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그리운 내 어머니,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군사랑법우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호국정심사에서 위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만인동침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금강경 백가해 간경 대법회

한국의 큰스님 백분을 모시고
백일동안 금강경 법문을 듣는 간경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간경(看經) 및 독경 사경수행은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배도록 해 궁극적으로 성불로 이끄는 수행법입니다.
◆ 본 간경결계의 법사로는 조계종 원로회회의 원로스님과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의 종진스님, 국내외 대학에서 철학 및 종교학박사를 소지하고 국내외스님과 오랜기간 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수좌스님들이십니다.
◆ 백일법문에 사용하는 경전은 조계종의 소의경전 금강경입니다.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 보살계 수계대법회
● 일시: 2006년 4월 9일 10시 30분 ● 장소: 부루나포교원 대법당

-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
- 사경 및 독경기도: 오전 10시 반
- 금강경 백일법문: 오후 7시
- 아비라 참회 기도: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

* 백일기도 동안 절에서 숙식을 하며 기도 하실 분은 중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시간 안내

일요일, 국가공휴일, 초하루, 치장제일, 관음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 부처님오신날 하안거 결계일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 외의 날은 저녁 7시 법문입니다.

- ▶ 일시: 2006년 2월 26일부터 백일간
- ▶ 장소: 인천 가좌동 부루나포교원(법명사) 큰법당
- ▶ 문의: 종무실 ☎ 0321577-5108

대한불교 조계종 부루나포교원 (법명사) 인천불교대학

인천불교대학 제 5기 및 기초교리 34기 신입생 모집 안내

인천불교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법 제15조에 의거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법령사에 인가한 인천 최초의 불교대학으로서, 불교의 근본 이념과 실천사상을 바르게 널리 알리고, 불교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바른 실천이 뒤따르는 깨어있는 포교를 위하여 불교신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인천 불교대학은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려 하는 모든 불자들의 수행처입니다.

- 신도기초교육과정만 공부하실 분은 입학 후 수계식까지(3개월) 수강
내용: 불교 기초교리 및 사찰예절과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
- 전문과정은 1년 동안 수강 후 졸업하며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게 됩니다.

학 과	교 과 목	수업 시간	교 수 진
[불교학과] 1년 정규대학과정 (교양과정 포함)	불교기초교리, 불지에절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교리, 포교방법론 사회복지학, 선종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화사상, 불교 실천, 수행	매주 수·목 오후 7시30분 ~ 9시30분 목요일은 선무,부모교육,요가, 찬불가노래교실 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교양강좌 특강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진, 조계종 대덕큰스님 외

- 모집기간: 개강시까지
- 개 강 일: 2006년 2월 26일

■ 신입생 특전

1.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후 포교활동 적극지원 (군부대, 경찰불자회, 어린이법회 등 상임포교사 및 지도법사 위촉)
2. 생활보호대상자, 출가 희망자 및 성적 우수자 학비면제
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졸업학점 이수자)

■ 문의 교학처 032)577-5108